

# 공원 프로그램 참여가 장소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서울숲을 중심으로 -

유다연\* ·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 I. 서론

최근 SNS가 발달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서 공원의 이용방식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의 공원이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었다면 놀레섬, 문화비축기지 등 최근에 조성된 공원은 문화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설계에 적극적으로 수용해 공원 내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오고 있다. 이렇듯 공원 프로그램으로의 참여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원을 방문하고 녹지서비스를 누리는 행동을 수반하는데, 이를 통해 공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동이 공원에 대한 장소애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원 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숲'을 연구대상지로 설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정성적 분석을 통해 공원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조경 공간 안에서 기획되고 있는 공원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해당 장소에 대한 참여자의 장소애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장소애착이 조경 공간의 자체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봄으로써 공원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공원의 자체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설정

서울숲 내의 공원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인터뷰의 질문 항목은 대상자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 공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평가, 장소애착 형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공원 관리 활동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4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이 모두 이루어졌고, 비참여자의 경우에는 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질문은 제외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소애착 형성의 평가를 위한 질문의 경우 선행 연구인 '주민참여형 소공원에서의 장소애착이 공원관리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위래, 2012)의 측정 기준을 참고하여 장소 의존성, 장소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려 했다. 공원 관리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질문은 장소애착과 환경책임행동에 대한 연구(김현 등, 2015)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구성했다.

설문조사는 크게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숲에 대한 방문 경험, 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과 평가, 장소애착의 형성, 특정 상황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의 행동,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 관리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숲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비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무작위로 배포할 경우 공원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의 도움을 받아 '화요일엔 수목원'이라는 서울숲 공원 프로그램 운영 밴드에 설문조사 모집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을 진행했다. '구글 설문조사'를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설문 결과가 제시된 연구 주체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소애착', '자체적 유지 관리' 등의 단어는 최대한 제외하고 제작되었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 관리에 대해 묻는 항목,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행동 관련 항목과 관련해서는 이전의 질문으로 인해 도덕적 책임을 느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질문지를 구성하려 하였다.

## III. 장소애착 형성과 환경책임행동 평가

서울숲의 공원 프로그램 참여자 2인, 비참여자 2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시민 참여를 통한 공원 관리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지만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참여의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가 공원 관리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 의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숲의 이미지와 만족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가 더 구체적인 장소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총 38개의 응답을 얻었으며 연구 분석의 과정에서는 서울숲을 방문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3개의 응답을 제외한 35개의 응답만이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장소애착의 관련 개념 중 장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면 서울숲이 자신에게 특별한 장소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룹(A)이 78.7%의 비율로 그렇다고 답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그룹(55.5%)보다 더 높은 장소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소 의존성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숲에서의 경험이 대체될 수 없는 경험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그렇다고 답한 A그룹의 비율이 B그룹보다 5% 높게 나타났다. 재방문 의사와 전반적인 만족도의 정도를 표현하는 항목에 있어서도 두 항목 모두 A그룹이 B그룹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장소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민 참여에 대한 인식과 환경책임적 행동에 대한 항목을 분석해보았다. 환경책임적 행동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서울숲을 이용하다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며 예상행동을 묻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제공된 3가지 상황 모두에서 그룹A가 더 높은 비율로 자율적인 행동(환경책임적 행동)을 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 관리에 대한 항목에서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각각 4.44와 4의 정도를 택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후 비슷한 프로그램이 생길 시의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A의 경우 참여 의사의 평균 정도가 4.33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하지 않은 B그룹에서는 3.27으로 낮은 참여 의사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공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형성된 장소애착이 자발적인 공원 관리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항목에 대하여 참여횟수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환경책임적 행동과 관련된 항목에서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1회인 그룹x가 2회 이상인 그룹y보다 최대 55% 높은 행동의사를 보여,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자발적인 공원 관리 활동 참여의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해볼 수 있었다.

## IV. 결론

인터뷰 내용 중 일부와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공원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장소애착 형성, 그중에서도 장소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원프로그램 참여자가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의 유지관리 활동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원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공원의 자체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장소애착이나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 관리 등 가설의 기본이 되는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이미 다수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입증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차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와 장소애착 형성 사이의 관계를 더욱 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요인으로 형성된 장소애착과 공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형성된 장소애착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거주지, 거주기간, 방문횟수 등 다른 요인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활동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프로그램의 분류별 장소애착 형성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공원 프로그램 기획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1. 고동완, 이상훈, 오수진(2015) 공정관광의 장소애착과 책임관광 행동 탐색. 관광학연구 39(4): 129.
2. 김미나, 심정선, 김효정, 김용근(2009) 서울 숲 공원관리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리주체와 공원이용객 인식 연구. 국토계획 44(1): 223-234.
3. 김현, 송화성, 김예은(2015) 활동관여-장소애착 유형에 따른 환경책임행동분석 - 남한산성 도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3(3): 114-124.
4. 박훈(2019) 근린공간으로서 도심지 썸지공원의 이용행태와 장소애착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지역의 한평공원 및 한뼘공원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57: 707-722.
5. 조위래(2012) 주민참여형 소공원에서의 장소애착이 공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허재희(2015) 도시공원 프로그램의 변화 과정 - 서울숲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